

12. KDI와 정부의 관계

앞에서 소개한 연구업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KDI는 설립 이래 정부, 특히 청와대 및 경제기획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산업·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정부를 직접 도왔고, 수시로 제기되는 당면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자문해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연구활동은 모두 정부의 경제정책의 질을 높이고 확실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실증적·이론적으로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정부와 KDI는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예나 지금이나 개성이 강하고 학문적인 자긍심이 강한 두뇌집단과 권위주의적인 체질의 엘리트 관료집단 간의 융화와 협력은 쉽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자유롭게 사고하는 습관이 몸에 밴 수석연구원들이 돌아오자마자 관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김만제 원장은 초창기부터 KDI 박사들과 정부 관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창립 직후 수석연구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경제기획원 관료들과 KDI 박사들이 축구시합

을 매년 열어 친목을 다졌고, 회식 자리를 마련하여 인간적인 친분을 쌓도록 권장하는 등 미팅의 기회를 자주 갖게 하여 서로 이해하고 정서적인 친화력이 다져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정서적, 인간적인 신뢰와 친화력을 다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와 KDI는 업무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공무원의 KDI 파견제도와 KDI 박사들의 정부 파견근무제도를 운영했다. 공무원 파견제도는 주로 경제기획원 중견급 공무원들이 KDI에 와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박사들의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였고, KDI 박사들의 정부 파견근무제도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박사들이 일정 기간 정부 부처에 나가서 근무를 하며 직접 돕는 제도였다. 이 두 제도는 정책을 연구하는 측과 정책을 집행하는 측이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상호 업무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함께 사고하고 행동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공무원의 KDI 파견제도는 초기에는 주로 경제기획원 공무원들이 들어왔지만 차츰 재무부, 상공부 등 경제 부처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담당 부서의 실무자급 중견 간부들로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수석연구원들의 연구에 참여하여 토론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파견 나온 공무원들과 KDI 수석연구원이 특정 정책과제를 놓고 공동 연구를 하여 해당 부서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제도는 수석연구원들과 공무원들의 친화력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와 정책 집행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안병엽(安炳燁)·한덕수(韓惠洙)·김인호(金仁浩)·김경중(金景中)·권문용(權文勇)·강봉균(康奉均)·김영태(金英泰)·이철수(李哲守)·이학현(李學鉉)·장석준(張錫準) 씨 등 10여 명의 국장급 중견 공무원들이 파견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수의 일환으로 관료들을 파견근무케 하

는 제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제도로 온 것은 아니었지만 남덕우(南應祐)·황병태(黃秉泰)·서석준(徐錫俊)·조정제(趙正濟)·김태승(金泰昇) 씨 등 고위 관리들이 퇴직 후 KDI에 와서 연구자문위원 혹은 초빙연구원으로 연구를 도운 일도 있었다.

다음으로 KDI 수석연구원들의 정부 부처 파견근무는 공식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수석연구원들이 정부 각 부처에 수시로 파견되어 일정 기간 일을 하고 돌아왔다. 대부분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에 따라 책임자를 원장이 지명하였지만 협조를 요구하는 쪽에서 특정 수석연구원을 지명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석연구원들은 적게는 1개월 정도에서 많게는 5,6개월 동안 정부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쪽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보고 이해하는 현장 경험을 쌓았던 것이다.

초기에 들어온 수석연구원은 대부분 정부 부처에 파견되어 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간혹 해당 부처의 간곡한 요구로 아예 KDI를 그만두고 관리로 전직한 경우도 있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 1971년 1진으로 들어온 수석연구원 중에서 김적교·송병락 박사는 청와대로 파견근무를 나간 일이 있고, 김영봉 박사는 1년여 기간 상공부에서 정식 근무를 하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 또한 1973년에 들어온 사공일 박사와 남상우 박사는 김준성 부총리 자문관으로 부총리실에 나간 일이 있고, 그 후에는 주학중·김인철·구본영·이덕훈·엄봉성 박사 등 많은 수석연구원들이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기타 정부 부처에 파견되어 일을 도왔다. 그리고 초기에 들어온 박사들 중 김대영 박사는 경제기획원 통계국장에, 김윤형 박사는 새로 발족한 동력자원부의 국장에 스카웃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KDI에 계속 남아서 연구생활을 하고 싶어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관계로 나간 경우이며, 동력자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발족하면서 그쪽 책임자로 간 이회성 박사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KDI와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정부 고위층의 KDI에 대한 절대적 신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제 초대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KDI가 설립된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KDI에 들러 수석연구원들을 모아 놓고 격려를 해주셨고, 원장인 저를 1년에 한 번꼴로 불러 점심을 주시며 배석자 없이 많은 것을 묻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도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나 안정화 시책의 도입이 필요해진 1978년 말경부터는 매일 한 차례씩 저를 불러 이것저것 걱정을 하며 제 의견을 물으시곤 했습니다. 그만큼 KDI와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긴밀했다는 증거였지요. 그리고 공식적인 정책 건의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규칙입니다. 발족 당시에는 정소영(鄭昭永) 경제수석이 계셨고, 그 후에는 김용환(金龍煥)·이경식(李京植)·이희일(李禧逸)·서석준(徐錫俊)·김재익(金在益) 경제수석이 계셨는데 이분들 역시 업무면에서 KDI를 믿어 주셨고, 원장인 저와도 밀접한 협조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 역시 제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부총리인 경제기획원 장관을 여러 분 모셨습니다. 설립 때는 김학렬(金鶴烈) 부총리가 앞장 서서 많은 애를 써 주셨고, 그 뒤에는 태완선(太完善)·남덕우(南應祐)·신현확(申鉉喆)·이한빈(李漢彬)·신병현(申秉鉉)·김준성(金竣成) 부총리로 이어졌는데 이분들 모두가 KDI를 크게 활용해 주시고 연구업무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 경제수석, 그리고 주무 부서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과 KDI는 밀접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정부 부처와도 빈번한 업무 협조가 있었고, 여러 공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관계도 다양했다. 이처럼 복잡한 창구를 상대하고 관계

를 유지해야 하는 KDI로서는 항상 조심스럽고,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만제 원장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다.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만 우리나라 사회는 예로부터 인간관계가 업무 추진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새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이 KDI의 연구 역할을 외면하면 우리의 연구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KDI로서는 정부 관료들과의 인간관계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KDI를 십분 활용해 주셨고, KDI의 능력과 역할을 평가해 주는 신뢰관계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5공화국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DI가 단기간에 세계적 명성을 얻은 두뇌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업적에 대한 이분들의 순수한 신뢰가 힘이 되어 준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KDI와 우리 정부의 관계처럼 경제연구소와 정부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그 결과의 산물로서 경제발전이라는 훌륭한 열매를 거둔 예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다고 한다. KDI보다 먼저 미국 포드 재단의 기금으로 설립한 그리스와 파키스탄 연구소를 비롯하여 KDI를 그대로 모방하여 설립한 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연구소는 연구소로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연구소가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각각의 고유 영역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시기의 우리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은 세계가 인정하고 배우는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KDI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했다.

이처럼 정부와 KDI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KDI의 수많은 연

구업적과 그 연구과정에서 보았듯이 서로 상대방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한 결과이며, 경제를 발전시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정부의 목적 수행에 KDI가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